

현장과 시각

‘천수답’식 AI 방역



채희중

사회2부 차장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지난 1일 전북 김제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하지만 다행히 지난 20일부터 전남지역에서 새로운 AI감염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등 전국적으로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닭·오리 사육농가는 물론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방역을 하는 전남도 등 AI발생지역의 지자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AI가 발생한 지 이미 23일이 지났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AI에 대해 밝혀진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오리나 닭이 집단 폐사하면 해당 지자체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AI감염 여부를 대개 5일이 지나면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AI의 발생 원인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또한 전남과 경기도에 나타난 AI가 전북으로부터 전파된 것인지 현지에서 자연발생한 것인지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AI발생지역 지자체들은 해당 농장의 가금류 살처분과 예방 차원에서 영항권의 닭·오리를 추가 살처분하는 것이 고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AI가 발생한 지역의 농민들이 정밀검사 결과와 언제 나오는지, 이제는 안심해도 되는지 등을 물어오지만 무엇보다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답답할 뿐”이라면서 “AI가 완전히 진정되더라도 발생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래도 방역당국은 소독을 꾸준히 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이 급상승하고 있어 조만간 AI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주 출신 이소연씨가 한국인 최초로 우주를 밟는 등 우주시대가 열렸지만 아직도 우리의 방역·질병관리 업무는 ‘하늘만 쳐다보는 천수답’같이 자연 소멸해줄기만을 기다리는 수준인 셈이다.

/chaekw@kwangju.co.kr

한·중·일 정상 정례회담 9월 日서 첫 회의

한국과 중국, 일본이 정기적인 개최를 추진중인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오는 9월 일본에서 첫 회의를 갖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毎日)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의 정상회담에서 급변 중 일본 개최 방침에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일본 정부에서는 다음달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일중 정상회담에서의 정식 합의를 거쳐 실무 차원의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그동안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열려왔으나 작

년 11월 당시 노무현 한국 대통령과 후쿠다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간의 싱가포르 회담에서 3국 정상회담을 아세안에서 분리해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3국 정상회담을 9월로 잡고 있는 것은 오는 11월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에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첫 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와 환경문제, 일중 투자협정 체결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한중일 3국 외무장관 회담도 일본에서 개최된다.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23일(한국 시각)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열린 ‘정치연구소포럼’ 강연에서 햇볕정책만이 공산주의를 성공적으로 변화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햇볕정책만이 공산주의 변화 유도”

DJ 하버드대 강연

미국을 방문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각) 하버드대학에서 ‘햇볕정책이 성공의 길이다’라는 주제로 가진 강연을 통해 햇볕정책만이 공산주의를 성공적으로 변화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치연구소(IOP)포럼’ 강연과 질의응답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변화와 더불어 문화적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자랑스러운 햇볕정책의 성공”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록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전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뤄낸 북핵합의를 배제하면서 ‘따뜻한 햇볕의 시대’가 차가운 북풍의 시대로 다시 역전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중인 6자회담도 햇볕정책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

하고 협력하기 시작하면 미국과 세계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국교정상화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햇볕정책은 쌍방이 혜택을 받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런 의미에서 “무력사용이나 냉전대결을 배제하고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햇볕정책의 유용성은 비단 한국에서만 성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효력이 입증됐다”면서 구소련과 동유럽의 민주화, 중국과 베트남의 변화를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역사의 교훈, 저의 경험에 비추어 햇볕정책만이 공산주의를 성공적으로 변화시키는 길”이라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일종의 햇볕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5일 폴란드에 도착, 10박11일의 방미일정을 시작한 김 전 대통령은 23일 플레처스쿨 오찬 강담회를 가진 뒤 24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힐러리 로드햄 클린턴 상원의원(뉴욕주)이 22일(현지 시각)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야간 파티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펜실베이니아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승리를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힐러리, 펜실베이니아 승리 ‘벼랑 탈출’

美 대선 민주당 경선...오바마 10%P 차이

미국 대선 민주당 펜실베이니아주 프라이머리(예비경선)에서 22일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을 누르고 승리, 사상 첫 여성 미국 대통령을 향한 도전전을 계속할 수 있는 불씨를 살렸다.

지지 대의원 수에서 오바마에게 100명 이상 뒤지고 있는 힐러리는 당초 20% 이상 앞섰던 펜실베이니아에서 10% 차이로 승리를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나 오바마의 우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앞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경선 레이스를 펼쳐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펜실베이니아 전역에서 실시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투표 99% 개표 결과, 힐러리는 55%의 득표율로 45%를 얻은 오바마를 10% 포인트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힐러리는 승리 확정된 뒤 지지자들에게 이 날 경선 결과로 대세가 바뀌고 있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 백악관을 되찾겠다고 다짐, 후보경선 레이스를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9개 지역 경선에서 힐러리가 모두 이긴다 해도 선출직 대의원 수 경쟁에서는 오바마에게 크게 뒤지는데다 당연적으로 후보 선출 전당대회 투표권이 주어지는 전현직 대통령과 주지사, 상하원 의원, 당 간부 등 800명 가까운 슈퍼대의원 확보경쟁에서도 갈수록 오바마가 유리해지고 있어 힐러리의 역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노벨상 로비설 근거 없는 주장”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2일(현지 시각)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로비설은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전 국정원장 김기삼씨의 기자회견 내용을 본 뒤 대응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씨가 망명을 허용받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언어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실장은 김씨가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자료도 없을 것이라면서,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 할 경우 법적 대응 등 여러 가지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한미FTA 9월말 이전 통과 목표”

美 무역대표부 대표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9월 말 이전 통과를 목표로 대(對)의회 설득작업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이날 워싱턴 USTR 1층 사무실에서 한국특파원과 기자 회견을 갖고 “최고기 문제가 해결돼 한미FTA를 비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FTA 추진을

위한 전혀 다른 새로운 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전세기 문제를 해결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최고기 문제 해결로 정치적 신뢰가 회복이 됐다”고 말했다. 슈워브 대표는 한미FTA 의회 비준동의의 일정에 관련,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정은 없지만 가장 적절한 때에 법안을 제출해 올해 안에 가능한 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양국 대통령들도 한미FTA를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문제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Kyuten (큐텐) medicine,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ext about health benefits. Includes a heart icon and the Kyuten logo.